

<제2강>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자음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끄나풀, 나팔-꽃, 녘, 부엌, 살-뺨이, 칸, 털어-먹다)

제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을-갈이, 거시기, 분침(分針)]

<해설>

1. 제3항과 제4항에 제시되어 있는 예들은 이미 일반화되어 언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언어의 변화를 모두 표준어에 반영할 수도 없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리고 언어는 몇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사용하자고 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예로 국어순화운동을 볼 수 있다. 일본어투 용어를 고유어로 순화해서 공표하고, 그렇게 쓰도록 권장하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언중이 사용해야만 그 말은 인정되고,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이것을 언어의 사회성이라 한다.

- 실패한 예 : 기입(記入) → 써 넣음, 견학(見學) → 보고 배움. 나가레(나가리) → 유찰, 깨집. 노가다 → 노동자
- 성공한 예) 벵또 → 도시락, 가라오케 → 노래방. 씨클 → 동아리

2. '새벽녘, 부엌'의 발음

- 표준발음법 제13항 :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동녘이 [동녘기], *[동녁기]; 부엌을 [부어클], *[부어글]

3. '거시기'는 표준어(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

1) [ㄷ]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 그 이름 대신으로 쓰는 말.

2) [ㄷ] 하려는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얼른 말하기 거북할 때, 그 말 대신으로 쓰는 군말. 예) '거시기'는 귀신도 몰라.

제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강냥-콩, 고삿, 사글-세, 울력-성당)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갈비, 갓모, 굴-젓, 말-걸, 물-수란, 밀-뜨리다, 적이, 휴지)

<해 설>

어원은 뚜렷하지만 언중들의 어원 의식이 약해져서 어원으로부터 멀어진 형태가 현대에 널리 쓰이면 표준어로 삼고, 아무리 어원에 충실한 형태이더라도 현대에 널리 쓰이지 않는 것은 표준어에서 제외할 것을 다룬 규정. 표준어 규정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인 점을 염두에 둘 것.

- ‘江南’은 중국의 양자강 以南, 흔히 남쪽의 먼 곳이라는 뜻으로 쓰임. 우리나라에서는 한강 이남 지역을 가리키기도 함.

- 국어에서 ‘洋-’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서양의, 서양식의, 서양 원산의’ 뜻을 가짐. 양과자, 양담배, 양약기 등.

제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돌, 돌-째, 셋-째, 넷-째, 빌리다(=빌려 주다, 빌려 오다), 열두-째, 스물두-째]

<해 설>

- 용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 온 것 중 그 구별이 인위적이어서 오히려 혼란을 일으켜 오던 것을 하나로 정리한 것임.

- 차례를 나타내는 말로 ‘열두째, 스물두째, 서른두째’ 등 ‘두째’ 앞에 다른 수가 올 때에는 받침 ‘ㄹ’이 분명히 탈락하는 언어 현실을 살려 부득이 종래의 구분을 유지함.

예) ㄱ. 앞에서 열두째 학생은 앞으로! ㄴ. 아이스크림을 벌써 열둘째 먹었다.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수- : 수-평, 수-놈, 수-소(황소),

술- :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땀,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수-평아리

숫- : 숫-양, 숫-염소, 숫-쥐

<해설>

중세국어에서는 ‘ㅎ’을 끝소리로 가진 명사들이 80여 개가 있었다. 이런 단어들을 ‘ㅎ-종성체언’(또는 ‘ㅎ-곡용어’)이라 하는데, 현대로 내려오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암-, 수-’ 정도다. 현대국어에서 ‘ㅎ-종성체언’의 화석으로 남아 있는 단어로는 다음의 몇 개가 있다.

예) 머리+가락 → 머리카락, 살+고기 → 살코기, 안+밖 →안팎, 마+바람 →마파람 등.

· 현대 국어에서 ‘ㅎ-곡용어’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암-, 수-’ 중, 특히 ‘수(雄)’의 표기는 ‘수, 숫, 숭’ 등으로 복잡하다. 그래서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기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숫’으로 쓰기로 하였다.[중세국어에서는 ‘암, 수’가 명사로 사용되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접두사로 변함. 예) 암히 수흘 좃놋다(雌隨雄)<두중 17:5>]

· 예외) 숫양, 숫염소, 숫쥐

· 이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수-’로 쓴다. 다만, ‘수-’와 결합하는 단어가 거센소리로 날 수 있을 때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 주의할 점은 거센소리로 적는 단어는 위에 제시된 단어로 한정한다는 점이다.

수개미 *수캐미; 수거미, *수커미; 수고양이, *수코양이; 수비둘기, *수피둘기

주의) 수놈, 수소.

제2절 모 음

제8항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깡충-깡충, -둥이, 발가-송이, 아서, 아서라, 오뚝-이, 주추)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부조(扶助), 사돈(查頓), 삼촌(三寸)]

<해설>

국어는 모음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언어다. 그러나 모음조화 규칙은 중세국어 이후 계속 쇠퇴하여 현재는 모음조화가 몇 개의 어미에서 겨우 지켜지는 정도다.

현대 국어에서 양성모음은 ‘아,오’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음성모음이다. 국어 모음변화의 양상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음모음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양성모음들이 음성모음화하는 현상이다. 지금까지 모음조화 규칙에 얽매어 이런 음모음화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실 발음을 받아들여 음모음화 현상을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양성모음이었던 ‘아,오’가 음성모음인 ‘어,우’로 바뀐 것들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예들이다.

1) 중세국어는 양성모음(으, 아, 오), 음성모음(으, 어, 우), 중성모음(이). 이중모음은 핵모음의 음양을 따름. 즉, 이 → 으(핵모음) + ㅣ(부모음) → 양성, 예 → 어(핵모음) + ㅣ → 음성. 중세국어에서는 ‘체언+조사, 용언 어간+어미’에서는 모음조화가 아주 잘 지켜졌고, 단어 내부에서도 비교적 잘 지켜졌다. 그러나 ‘으’의 비음운화에 의해 모음조화는 붕괴되었다.

2) 현대국어에서 음운규칙으로 존재하는 모음조화는 ‘용언 어간+어미’에만 있는데, ‘양성모음 어간 + 아X’, ‘음성모음어간 + -어X’로 나타난다. 예) 잡-아라, 먹-어라

다만 현실적으로는 ‘부주, 사둔, 삼촌’이 널리 쓰이는 형태이나 이들은 어원을 의식하는 경향이 강해서, 음성모음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둔(査頓)은 단순한 한자 取音語이지만, 한자 표기 의식이 강하므로 그대로 ‘사둔’으로 한다.

제9항 ‘ㅣ’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내기, 냄비, 동맹이-치다)

[붙임1] 다음 단어는 ‘ㅣ’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아지랑이)

[붙임2]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미장이, 유기장이, 멧쟁이, 소금쟁이, 담쟁이-덩굴, 골목쟁이, 발목쟁이)

<해설>

1. 'ㅣ' 역행동화는 후행하는 'ㅣ'모음의 영향으로 선행하는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인 '에, 애, 위, 외' 등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 아기→애기, 손잡이→손잡이, 학교→핵교, 먹이다→멕이다, 어미→에미, 고기→괴기
2. 'ㅣ' 역행동화는 전국적으로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 변화는 수의적 이어서 그 동화형을 표준어로 삼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 변화가 너무 광범위하여 그것을 다 표준어로 인정하면 너무 큰 변혁이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ㅣ' 역행동화 현상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3. ㄱ. -내기 : ㉠ 어느 곳 태생이거나 어느 곳에서 자랐음을 가리키는 말.
 ㉡ 어떠한 말에 붙어서 그 말이 뜻하는 사람임을 알잡아 이르는 말.
 ㄴ. 냄비 : 일본어 나베(鍋 : 냄비 과)에서 온 말이라 하여 원형을 의식해서 처리했던 것이나, 지금은 어원이 의식되지 않으므로 '냄비'를 표준어로 삼았다.
 ㄷ. 아지랑이 : 현실 언어 형태를 받아들임.
4. 'ㅣ' 역행동화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부딪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장이'와 '-쟁이'다. 만일 'ㅣ' 역행동화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匠人'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과의 구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匠人'을 나타내는 단어는 '-장이'로 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모두 '-쟁이'로 하기로 했다.
 ㄱ. 양복장이 : 양복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기술자.
 ㄴ. 양복쟁이 : 양복을 멋드러지게 입은 사람. 혹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
 ㄷ. '점쟁이'도 '점장이'로 쓰지 않는다. 점을 치는 일이 기술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손기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관상쟁이, 중매쟁이, 욕심쟁이, 욕쟁이...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괴팍-하다, -구면, 미루-나무, 미륵, 여느, 온-달, 으레, 케케-묵다, 허우대, 허우적-허우적)

<해설>

1.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현상은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특히 전라 방언에서 '외, 위, 와, 워'의 단모음화가 많이 나타나고, '여'도 '에'로 단모음화가 일어난다.

사과 → 사가, 과 사무실 → 까 사무실, 과자 → 까자,
시골쥐 → 시골지, 귀 동냥 → 기 동냥, 고마워 → 고마어, 사무원 → 사무언.
벼 → 베, 멸치 → 멜치

2. 괴팍하다(乖愆--): 성질이 까다롭고 별나다.

그러나 '강팍하다, 팍하다, 팍성' 등은 여전히 '팍'으로 쓰도록하여 얼마간의 불균형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괴팍하다'만큼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 강팍하다(剛愆--):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 팍하다(愆--): 성질이 너무 괴팍하여 걸핏하면 성을 잘 내다. 팍하다.
- 팍성(愆性): 걸핏하면 화를 내는 성질. 팍성.

제11항 다음 단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구려, 깍쟁이, 나무라다, 미수, 바라다, 상추, 시러베-아들, 주책, 지루-하다, 튀기, 허드레(허드렛-물, 허드렛-일), 호루라기]

<해 설>

1. 어느 한 현상으로 묶기 어려운 모음 변화를 다룬 항이다.

1) -구려 :

㉠ 용언의 어간이나 '-았/었-' 등에 붙어, '하오'할 자리에 붙어 새삼스런 감탄의 뜻으로 쓰이는 종결어미. 참 고맙구려.

㉡ 동사의 어간에 붙어, '하오' 할 자리의 상대에게 권하는 태도로 시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좋도록 하구려.

㉢ '로구려'의 준말. 저게 금강산이구려.

2) 깍쟁이 :

㉠ 몸집이 작고 알뜰게 약빠른 사람.

㉡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

- 서울깍쟁이 : 시골 사람이 서울 사람의 까다롭고 인색한 모양을 비꼬아 하는 말.

- 알깍쟁이 : ㉠ 성질이 다부지고 모진 사람. ㉡ 아이 깍쟁이. 또는 어려서부터 깍쟁이인 사람.

- 찰깍쟁이 : 아주 지독한 깍쟁이.

3) 바라다 : 타)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거나 기대하다. 명사형) 바람.

바래다1 : 자) 별이나 습기를 받아 빛이 변하다. 명사형) 바램.

타) 빨래 등을 별에 쬐어 희게 하다.

바래다2 : 타) 가는 사람을 중도까지 배웅하다. 명사형) 바램.

- 따라서 '所望'을 나타내는 단어는 '바람'이어야 한다. 언중들은 이 단어와 바람(風)이 똑같기 때문에 '所望'을 나타낼 때, '바램'으로 하는 일이 많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4) 시러베아들 : 실없는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 시러베자식.

5) 주책 : ㉠ 일정하게 자리잡힌 생각. 쯤대.

㉡ 쯤대 없이 되는 대로 하는 짓.

- '주책'은 현대국어에서 서로 상반되는 두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의미가 확장됨.

6) 허드레 : 허름하고 중요하지 아니하여 함부로 쓸 수 있는 것.

제12항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윗-넓이, 윗-니, 윗-도리, 윗-목, 윗-몸, 윗-변, ...)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위-짹, 위-쪽, 위-채, 위-층, 위-턱)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웃-국, 웃-기, 웃-돈, 웃-비, 웃-어른, 웃-웃)

<해 설>

1. ‘上’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웃’, ‘윗’, ‘위’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보였는데, 이를 통일시키고자 함이다. 이들은 명사 ‘위’에 사이시옷이 결합된 것으로 해석하여 ‘윗’을 기본으로 삼았다. ‘위’라는 단모음을 가지지 않는 방언에서는 대부분 ‘우’로 실현되어왔다.
2.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잇소리를 쓰지 않기로 한 한글 맞춤법 규정 제30항의 규정에 따라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는 ‘위’를 쓴다.
3. 완전히 ‘웃-’으로 굳어진 단어들은 예외적으로 처리한다.
 - ㄱ. 웃날 : 흐린 날씨. 웃날이 들다 : 흐린 날씨가 개다.
 - ㄴ. 웃돌다 : 어떤 수량보다 많다. 평균치를 웃도는 수입.
 - ㄷ. 웃아귀 :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의 뿌리가 맞닿는 곳.
 - ㄹ. 웃국 : 간장이나 술 등에서 담근 후 맨 처음 떠내는 진한 국.
 - ㅁ. 웃기 : ㉠ 웃기떡(합이나 접시 따위에 떡을 담고 그 위에 모양을 내기 위해 얹는 떡.)의 준말. ㉡ 과일, 포, 떡 등을 껍 위에 모양을 내기 위해 얹는 재료.
 - ㅂ. 웃돈 : 물건을 맞바꿀 때에 값이 적은 쪽에서 물건 외에 더 주는 돈.
 - ㅅ. 웃비 : 雨氣는 가시지 않았으나 짹짹 내리다 그친 비.
 - 웃비 걸다 : 비가 오다가 잠시 날이 들다.
 - ㅇ. 웃웃 : 맨 곁에 입는 옷. 곁웃.

제13항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구절(句節), 구점(句點), 결구(結句), 경구(警句), 대구(對句), 문구(文句), 시구(詩句), 어구(語句), 인용구(引用句), …]

다만, 다음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귀-글, 글귀)

<해 설>

1. 종전에 ‘句’에 대한 음으로 ‘구’와 ‘귀’로 혼동이 심했는데, 이를 ‘구’로 통일했다. 다만, ‘句’의 訓과 음은 ‘글귀 구’다. 따라서 ‘글귀, 귀글’의 경우는 예외로 했다.
 - ㄱ. 귀글 : 두 마디가 한 덩이씩 짝이 되도록 지은 글. 한문의 詩賦 따위.
 - ㄴ. 글귀 : 글의 끊어진 구절. 아름다운 글귀.